# 美 뉴욕 사찰 대형 화재…스님 등 인명 피해

**가연성 물질서 화재 시작**
**불법 주차로 대응 지연돼**
**사찰 재건 모금 운동 시작**

김민재 객원기자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 트레몬트 지역의 태국불교 사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스님을 포함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 2월 13일, 해외언론 'AP통신'은 뉴욕시 소방국(NYFD)의 발표를 인용하며 12일 오전 6시경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찰과 인접한 두 주거건물이 전소했다고 보도했다.

브롱크스의 2층짜리 타운하우스 내부에 자리했던 사찰에서 시작한 화재는 인근 주거건물 두 채를 집어삼켰다. WABC-TV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불길에 휩싸인 사원 주변에서 대피 명령을 내렸고, 건물은 이미 전소된 상태였다.

소방국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실내에서 가동 중이던 난방기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뉴욕 브롱크스 태국계 불교 사원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 사진출처=WABC-TV

존 에스포지토 뉴욕시 소방국 부서장은 기자회견에서 "두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으며, 100명 이상의 소방관이 출동해 2시간 넘게 화재 진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존 부서장은 "안타깝게도 스님 등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며 "희생자들의 신원을 가족들에게 통보하기 전까지 대중에게 신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시 소방국은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됐던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대응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존 부서장은 "소화전 앞 불법주차는 화재 대응 시간을 치명적으로 늦춘다"면서 "지난 일주일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여러 화재 사건에서도 불법 주차된 차량에 막혀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뉴욕시 소방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 안전 캠페인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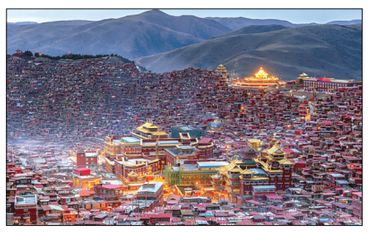
마유리 스리피롬 사찰 재무관은 "당시 많은 신도가 사찰 내부에서 자고 있었으며, 난방기 근처의 옷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됐다"며 "새벽 예불 중이던 스님들이 불이 난 것을 알고 대피시켰으나, 불이 삽시간에 번져 주거건물을 태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번 화재로 인해 사찰의 노령 스님이 입적해 충격을 금치 못 하는 중"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브롱크스 지역 태국 공동체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며 사찰 재건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마유리 스피리롬 재무관은 "이 사찰은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태국 공동체의 유대와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많은 이들의 힘을 얻어 하루빨리 사찰을 재건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中, 티베트불교 사찰서 스님 대규모 추방

**지난해 12월부터 라룽가르 사찰서**
**요사채 철거, 스님 1000여 명 추방**


세계 최대 불교연구센터 라룽가르 사원 전경. 사진출처=티베탄리뷰

중국에 위치한 세계 최대 불교연구센터 '라룽가르 사찰(吳明佛學院, 오명불학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지난 2월 13일 인도 월간지 '티베탄리뷰'는 중국의 라룽가르 사찰에서 벌어진 대규모 스님 강제 추방 소식을 보도했다.

쓰촨성(四川省) 티베트 자치주 써다(色達)현의 라룽가르 사찰에서 1000여 명의 비구와 비구니스님들이 추방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지속적인 티베트불교 압박과 통제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라룽가르 사찰 내 거주 인원은 최대 5000명, 최대 거주 기간은 15년으로 제한됐다. 거주자들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조치라면 사찰 내 수행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인도 다람살라에서 중앙티베트 행정부는 "12월 20일 중국이 라룽가르 사찰에 약 400여 무장병력을 배치해 요사채를 강제 철거했다"며 "이는 요사채를 5000채로 제한하는 국가 명령을 시행하는 조치였다. 이후 감시 헬기를 동원해 스님들의 동태를 파악 중"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자유 티베트'의 모니터링 그룹 '티베트 워치'는 "추방된 스님들은 대부분 마지막 대규모 추방이 발생한 2016~2017년 이후 이주한 스님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요사채 강제 철거 작업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최대 거주 인원을 초과하는 사찰 내 모든 요사채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베트남 죽림선 불교 유물 전시회 성료

**연례 문화관광주간 맞아 개최**
**대표 종단 '죽림선' 조명 전시**

지난 2월 14일, 베트남 일간지 '베트남뉴스'는 베트남 북부 산악지역 박장성에서 개최된 불교 유물 전시회 성료 소식을 전했다.

쭉럼 옌뜨 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죽림선(竹林禪) 법맥의 길'이라는 전시회는 2월 8~13일 개최됐다. 베트남 리 왕조부터 쩐 왕조를 걸친 시기(1400~1900년)에 조성된 불교 유물 100여 점과 쭉럼 옌뜨(Trúc Lâm Yên Tử, 竹林安子) 선원 사진 50여 점이 선보여졌다.

이번 전시회는 박장성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연례 문화관광주간의 일환으로 진행돼 타이 옌뜨 봄맞이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렸다.

'죽림선'은 현재 베트남의 대표적인 불교 종단이다. 민족정신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해 베트남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죽림선은 13세기 쩐 왕조의 인종황제가 출가한 뒤 옌뜨산에서 개산했다. 전시회를 연 쭉럼 옌뜨 문화센터는 13세기 쩐 왕조 시기 건축 양식의 집성체로 2018년 열린 '베트남의 혼, 쩐 왕조와 죽림선의 정신' 전시를 모티브로 지어졌다.


관람객들이 '죽림선(竹林禪) 법맥의 길' 전시회에서 유물을 관람하며 설명을 듣고있다. 사진출처=베트남 뉴스

응우옌 시 감 문화체육관광부 부국장은 개회식에서 "죽림선 전성기 동안 쭉럼 옌뜨는 베트남인에게 종교 생활의 중심지이자 문화 정체성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죽림선의 법맥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의미있는 전시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도내 11개 고고학 발굴지에서 엄선한 유물들을 보며 죽림선의 역사적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시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물의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 등 풍부한 이야기를 감상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전시를 탐험할 수 있다"면서 "유물, 사진을 보며 관람객들은 역사와 문화, 수행의 관계를 살펴보게 된다. 관람객들이 박장성의 속성에 대해 잘 알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지 주민들은 "전시회를 통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됐고 고용 창출이 증대됐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이 기대된다"며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와 역사의 중요성에 주목해 전시된 유물과 유산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과거를 기리고 미래 세대에 전하겠다는 의지와 박장성 발전을 촉진하는 움직임의 한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도 박장성은 불교의 생생한 역사를 선보이기 위해 문화 참여와 학습의 장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장성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이 옌뜨 성지로'라는 관광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 캐나다 주정부, 대만 불교단체 토지 조사

**지역 내 대규모 토지 소유**
**"농지 보호 위한 관리 필요"**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주 정부가 대만계 불교단체 두 곳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다. 지난 2월 13일 캐나다 지역 언론사 '코스트 리포터'는 캐나다 주정부의 대만계 불교단체 두 곳의 토지 소유 현황 조사 소식을 보도했다.

스티븐 마이어스 주택부 장관은 2월 12일 발표에서 "주민들이 대만계 불교단체 '대지혜불교연구소(Great Wisdom Buddhist Institute Inc)'와 '대각불교연구회(Great Enlightenment Buddhist Institute Society)'의 토지 소유와 사용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두 단체는 사원과 분원을 중심으로 PEI 동부 지역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PEI의 토지는 인구 증가, 농지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등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 규제 및 항소위원회가 '토지보호법(Lands Protection Act)'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이어스 장관은 비거주자의 토지 소유 감독 강화를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튜 맥팔레인 PEI주 녹색당 의원은 "두 단체 출·재가자가 10여 년 전부터 주 동부 지역에서 수백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해 왔다. 조직적으로 연결된 단체들이 소유 한도를 초과해 토지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토지 소유 문제를 둘러싼 불만과 의심이 커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지혜불교연구소'는 브루데넬에 위치한 비구니 승가로, 약 500명의 대만 출신의 스님이 사원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리틀 샌즈와 헤더데일에 분원을 둔 '대각불교연구회'는 약 600명의 대만 출신 비구 스님이 거주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love is fine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